

[ 사회 ]

77년만에 사라지는 순천 별량면 원창 간이역

‘세상의 출구’서 ‘추억의 입구’로



지난달 31일 문을 닫은 순천시 별량면 원창역. 혼자 대합실로 들어가는 승객의 옆 모습에 쓸쓸함이 짙게 깔려 있다. /순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툭툭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림처럼 맺은 줄고 /몇은 감기에 콜라하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中)

지난달 31일 오후 7시55분, 순천시 별량면 원창(元倉)역에 마지막 경전선(慶全線) 열차인 제 1977호 무궁화호가 멈춰섰다. 불 꺼진 역사(驛舍)엔 인기가 없었다. 대합실에서 졸다가 잠을 깨 중년도, 보통이를 머리에 이고 힘겹게 열차에 오르는 할머니도 없었다. 역무원의 눈을 피해 ‘도둑 통화’하려는 까까머리 중학생도 보이지 않았다. 초여름 바람만이 이 역 주위를 맴돌다 두 경 남짓한 간이역 대합실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다.

앞서 오후 2시45분께 정차한 순천발 목포행 제 1975호 열차도 승객이라곤 정정남(여·60·순천시 별량면 통송리)씨 혼자뿐이었다. 정씨는 “옛날에는 고추 등을 팔기 위해 장날 벌교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역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남조선철도주식회사 보통역’이란 이름으로 1930년 문을 연 원창역이 지난 달 31일 문을 닫았다. 벌교와 순천, 광주를 오가는 별량면 주민들의 사랑을 받

던 간이역은 도로 교통 발달로 기능을 상실했다. 승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지난 2005년 9월부터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무인 역사’로 운영됐다. 하지만 순천~송정~목포를 오가는 5편의 열차는 1일부터 원창역에 멈추지 않는다. 이웃한 구룡(九龍)역과 광양시 곽약(骨若)역도 그냥 지나치게 된다. 한국철도공사 전남지사가 하루 이용객 10명 이하인 역을 이년부터 폐쇄하기 때

문이다. 전국적으로 59개 간이역이 옛 모습을 잃게 된다. 철도공사 전남지사는 원창 역사를 전남도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창역은 맞은편에서 오는 열차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열차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만 이용될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삶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이 간이역이 사라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오명록기자 krah@

더위 식히는 비 6월 1일 (음 4월 16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like Gangwon, Seoul, Gyeonggi, etc.



영결식 후, 유가족들이 1학년 9반 교실에서 들어가 자녀의 빈 책상을 보며 오열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종이 없는 ‘사이버 재판’ 단계적 도입

2009년부터 시행. 판결문과 명령문, 기일 변경 결정문 등 각종 서류가 포함된다. 법원이 “소송 상대방이 답변서를 보냈습니까?”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변경할 것이 있으면 이 포털에 소송 서류를 올리거나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사이버 재판이 정착되면 소송기간은 단축되고 소송 당사자가 신속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연행뉴스

여치떼 습격 ‘골머리’

2년째 농작물 피해. 충북 영동군이 2년째 폐지어 나타나 농작물을 갉아먹는 갈색 여치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郡)은 1일부터 여치떼가 퇴치될 때까지 3개 팀 50여 명의 공동방제단을 구성, 살충제가 담긴 등짐펌프를 메고 퇴치작업을 벌인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6월 갈색 여치떼가 나타나 20여ha의 농작물에 피해를 낸 데 이어 10여일 전부터 급격히 수를 불린 여치떼가 영동읍과 황간, 학산면 일원 포도·복숭아밭 등에 나타나 나뭇잎·줄기·과일열매 등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고 있다. /연행뉴스

‘리니지 명의도용’ 회사 배상책임 없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가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중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가모 씨 등 1만689명이 엔씨소프트와 이 회사 대표 김택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리니지 게임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 게임에 계정 등이 개설돼

꽃다운 녀들 하늘로 떠나다

‘지리산 버스 참사’ 영결식. 유족들은 헌화를 마친 뒤 숨진 자녀가 공부했던 교실로 들어가 텅 빈 자리의 책상과 유품을 어루만지며 또 한번 통곡했다. 사고 당시 부상당한 학생들도 한자복을 입은 채 영결식에 참석, 마지막으로 떠나는 친구들을 배웅했다. 어린 녀들을 실은 영구차는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뒤, 장지인 순천시립화장장으로 향했다. 영결식에 앞서 순천시내 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추모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순천 매산중 1학년 9반 학생과 교사 등 35명은 지난달 25일 노고단 산행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가던 중 버스가 추락, 5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친환경적 병해충 예방 성공

전남대 김영철 교수팀, 매뉴얼 개발. 친환경적으로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김영철(식물생명공학부) 교수는 독자 개발한 농산물 병해충 예방 매뉴얼에 따라 무농약 수박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교수팀이 성공한 재배법은 인체의 면역력과 항체를 길러주는 백신처럼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 병해충 방제 미생물을 뿌리에 살포하는 방식이다. 담양군의 지원을 받은 김 교수팀은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와 공동 연구 끝에 ▲미생물 예방 주사제 ▲식물 추출물 제제를 이용한 무농약 병해충 방제 매뉴얼을 제작, 담양군 봉산면 4개 농가 5천평의 수박밭에 응용했다. 수박을 심기 전 미생물 예방주사가 함유된 미생물을 토양 관주 및 옆면에 살포하고, 정식 후 2주에 1회씩 살포한 것이다. 그 결과 정식 10주 후부터 점목 부위 줄기 두께가 관행재배보다 35% 이상 두꺼워지고 수확기까지 건강성이 지속됐다. 수박에 흔한 갯벌곰팡이병·덩굴마름병 등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 교수는 “과거 무농약 농산물 재배 연구는 병해충 발생시 사후 방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예방 단계로 들어섰다”며 “농약 비용 절감과 농산물 품질 개선 등으로 농가 수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

‘가로등 감전’ 관리부실 지자체 85% 책임

폭우가 내릴 때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됐던 지자체가 집중호우 관리 부실로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등 5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전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시설이 돼 있지 않고, 집중호우

사람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람공채 모집안내.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직원채용 (정규직) 2년제이상 졸업자, 남,녀(30세미만),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서울지원 TEL. 02)3664-5263.

www.hanbitgosi.co.kr >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공무원합격, 한빛이 주도한다. 두배 빠른 합격시스템 - 한빛 천하통일 - 직접 체험해보십시오. 79급공무원전강좌 개설. 종합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이룬반 2개월 완성, 서울시 문풀이반 1개월 완성. 농업직 “양승훈 교수팀” 특별초빙. 호떡급 대형학원! 최강의 프로그래밍! 최고의 학습시설! 이구동성! 누가 뭐래도 한빛이 최고! ★ 개강 6월 1일 (주/야간반 예약접수중) ★ 공무원학원의 1등 브랜드 한빛고시학원. 전대후론 부구청앞 (062)234-0234. 자매학원: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2-8088), 한빛경찰학원 (전대후론 부구청앞 262-3553).